

## 중국, 채소 잔류농약기준 초과율 높아

**중** 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에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올해 1~3월 1분기의 식품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소의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는 것이 7.2%였으며, 수산물에 사용되어 발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항균제 말라카이트그린에서 기준치를 넘는 것이 10.5%였다.

국영 신화사통신에 의하면, 국제사회에 중국산 식품의 불안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검사나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잔류약제와 수산물에 사용된 말라카

이트그린보다 독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항균제 클로람페니콜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넘는 것은 각각 1.2%와 0.2%로 개선 경향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번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惠魯生부국장은 「식품 안전성 대책을 진행하고 있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대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

원인으로서 시장의 유통제도나 법제도가 미비한 것과 생산판매업자가 신뢰성을 중시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향후 감시체제의 강화나 문제 식품 회수제도의 정비 외에도 위법자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국,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이해부족

**중** 국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조약」의 「국가이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12종의 POPs중에서 「클로르덴, 마이렉스, DDT가 여전히 생산·사용되고 있어 다이옥신류의 잔류성 물질이 존재하고, DDT나 PCB가 환경이나 식량 중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다이옥신류의 오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농업성은 지난 7월 25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채소의 잔류농약 검사합격율은 94%라

강조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물질의 생산이 행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스톡홀름조약은 2001년 5월에 채택되어 2004년 5월에 발효되었다. 작년 3월 현재 151개국 이 서명하였으며 118개국이 체결하고 있다.

POPs란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어려워 장기간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화합물질이다. 예를 들면, DDT는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POPs의 규제 대상 물질이다. 일본에서는 1971년에 전면 사용 금지되었다.

POPs의 무서움은 악영향이 한개 국가에만 머물지 않고 편서풍이나 화학물질의 저위도에서 고

위도로 이동, 축적을 일으키는 박타현상 등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POPs물질이 국내 토양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 POPs는 국제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된다.

중국은 2001년 5월 23일에 스톡홀름 조약에

서명해 비준을 받아 2004년 11월 11일에 발효시켰다. 중국정부는 제11회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중에서 협정이행에 대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생산구조의 적응, 클린 생산물의 촉진, 에너지의 효율, 환경보호에의 계몽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일본쌀, 중국 수출

**일** 본쌀의 중국 수출이 4년 만에 재개되었다. 가격은 중국산 일반쌀의 약 20배라고 한다. 과연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농업」으로의 비장의 카드가 되는 것일까? 쌀 수출은 2003년 중국측이 검역강화를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일·중 관계의 호전 등으로 해금되었다.

북경과 상해의 고급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것은 新潟縣산의 고시히카리와 宮城縣산의 히도메보레가 총 24톤, 고시히카리가 2kg당 약 25,000원, 히도메보레가 약 24,000원으로 일본 판매가격보다 비싸다. 수송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2kg들이 100봉지를 구입하는 고객도 있고 「매출은 최상」이라며 정부관계자는 좋은 반응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다. 선물용 등으로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쌀의 소비량이 연간 1억3천만톤으로 여겨지는 규모에 비하면 24톤은 극히 적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분발하는 것은 2013년에 농림수산물 수출총액을 1조엔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달성에는 연 15%정도의 성장을 달성하여야만 한다. 그것에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비용이 들어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일본의 농산물이 해외에서 통용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농산물의 수출에 힘을 쓰고 있는 지역도 있다. 益田시의 서부농협은 5년 전부터 저농약 쌀을 대만에 수출하고 있다. 鳥取縣산 이십세기 배의 수출역사는 더 오래 되었다. 이십세기 배는 엔고의 진행에 따라 수출환경의 악화 등을 인기가 높은 국가로 다변화하여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의한 부유층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식료의 자급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이 주식인 쌀의 수입을 간단하게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쌀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까는 미지수이다. 걱정인 것은 왜 이시기에 해금이 되었는지도. 중국의 농산물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측도 쌀 수입을 담보로 안전성을 둘러싼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해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요구해 오는 것은 아닐지 양적확대를 성급하게 하는 일 없이 착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해, 안전 '수입' 하는 「음식의 나라」

**일** 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태스크팀을 만들고 중국의 향후 10년간의 리스크와 그 영향을 다양한 데이터를 구사하여 추측했는데, 환경오염에 의한 위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21리스크」에 의하면, 환경위기로 하는 것은 물 부족,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을 가리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장으로부터 유독물질이 흐르기 시작해 바람이 불어가는 하류쪽 수백만 명에게 피해가 생긴다고 하는 위기이다.

이 가운데 토양오염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중국식품의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것이지만 중국 과학원에 의하면 공장 폐수에 포함되어 중금속에 오염된 경지는 2000만ha에 가깝다. 이것은 중국의 경지 총면적의 5분의 1로 되어있다. 더욱이 농약 사용이 지나쳐 회복불능인 농경지는 1300~1600만ha로 되어있다.

이것은 「음식의 나라·중국」에 있어서 사활의 문제이다. 예를들면 상해의 시장에 유통되는 양자강 델타 주변에서 재배되는 쌀은 「유독미(有毒米)」라는 별명을 받아 버렸다. 이유는 국제기준의 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또 있다. 일본계 식품검사 회사가 상해 주변에서 재배되는 채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 최저치로도 일본기준의 6배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잔류농약채소를 먹자마자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기상황이 오지는 않지만 1980년대 후반에 상해 주변의 농가가 농약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1000배로 얇게 사용

하여야 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300명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상해시의 주민은 잔류농약을 없게 하기 위해서 채소를 물에 30분에서 1시간 담그는 것이 상식이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그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시민사이에 망설임이 생기고 있다.

하여튼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으로부터 중국의 식재를 지키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면 일본산 쌀의 중국용 수출해금은 일본밭의 「안전수출」이라고 하는 문맥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달 26일에 북경과 상해에서 동시 판매되는 안전미의 가격은 2kg에 3000엔 전후로 중국쌀의 20배가 된다. 이것이 너무 높은가?. 그렇지 않으면 몸의 안전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것인가?

중국에서는 일본수출을 위한 채소나 쌀은 벌써 외자 유치한 기업경영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북 3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키타코마치는 생산량이 연간 12만톤이나 되지만, 이중 2만톤이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물론 대도시의 일본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비싸도 구입하는 중국인 기정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채소에 대해서도 일본계 상사원이 시작한 유기채소의 재배가 해마다 인기를 끌고 점점 안전의식이 높아가는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있는 것도 그러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요점은 중국의 「음식의 안전」이 파탄하고 있는 것을 주민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불신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Y